

"제주 잠녀 독도 물질 일본 침탈 야욕 맞서 독도 지키기에 일조"

김수희 영남대학교수 논문

의용수비대 경비 마련, 미역채취 위해 잠녀 모집

등록 : 2012년 11월 08일 (목) 09:30:28 | 승인 : 2012년 11월 08일 (목) 09:33:17
최종수정 : 2012년 11월 08일 (목) 09:31:39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제주잠녀의 독도 실효지배적 지배 의의가 재확인됐다.

제주 잠녀의 독도 물질사(史)는 지난 2009년 본보 잠녀기획팀의 취재를 통해 조명된 바 있다. 또 경상북도가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독도주민생활사」 등 자료집 제작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제주잠녀의 역할을 공식화하는 작업이 이뤄졌지만 학계가 이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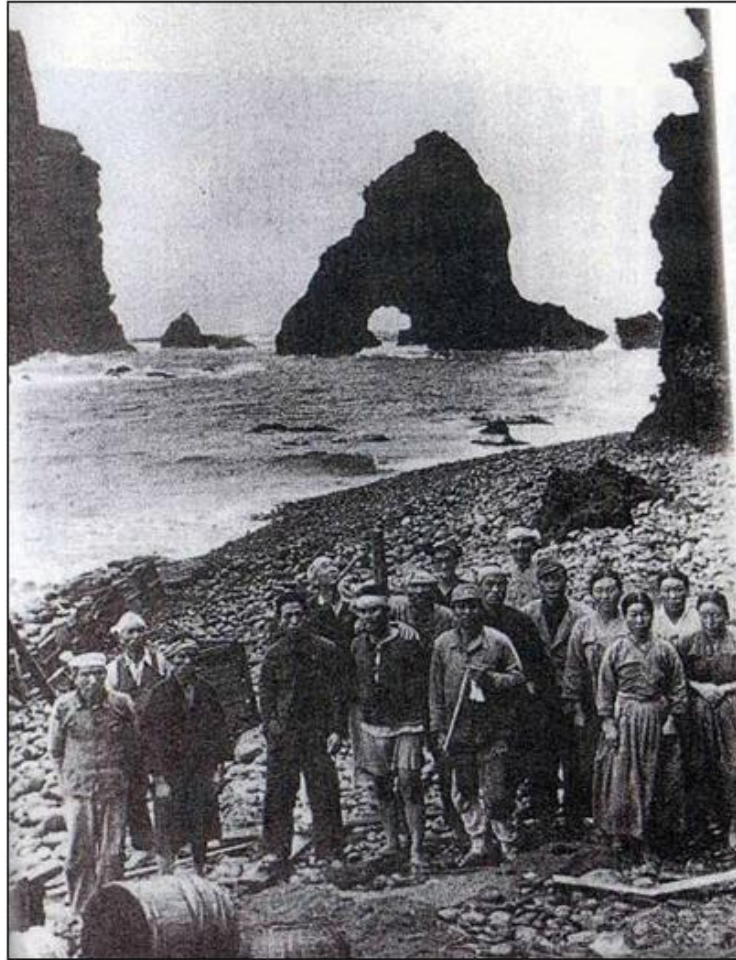
제주 출신인 김수희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는 10일 한일관계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할 연구논문 '해방 후 독도 어장에 대한 어민인식과 어업 활동'에서 해방 후 독도어장에 진출한 제주 잠녀들을 조명했다.

이전 제주 잠녀의 독도 물질은 일본에 의한 강제 노역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07년 부산외국어대 김문길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김 교수는 광복 이후 제주 잠녀의 독도 출가에 주목했다.

김교수는 1953년 일본인들이 독도에 푯대와 어업 금지 팻말을 세우는 등 독도를 불법 침탈하자 울릉도 출신의 홍순철이 독도의용수비대를 조직했고, 독도의용수비대는 자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미역채취 작업을 위해 제주 잠녀를 모집, 어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 잠녀의 독도 물질에 대해 "일본의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에) 상주하는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독도 지킴이에 큰 일조를 했다"고 평가했다.



▲ 1921년 최초로 독도에 물질을 하러 갔던 제주 잠녀의 모습.

김 교수 이번 작업은 그러나 전체 제주 잠녀의 독도 물질 중 어장 관리 등에 대한 부분만을 주목하면서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 필요성도 제기됐다.

본보 취재팀에 의해서 당시 전문 모집인에 의해 울릉도를 거쳐 독도 물질을 했던 상황과 함께 일본 순시선의 독도 해역 진입,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출가 물질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현재 독도 주민인 김신열 할머니(73) 역시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출신이다.